

IRA 수혜 본격화... 한화·OCI, 美 태양광서 반등 가속페달

미국 태양광 설치 50GW, 21% ↑ 한화, 시장 점유율 1위 '수혜' 기대 OCI, 현지 대형 프로젝트 '시동' 중 수요 둔화에 한국산 반사이익



OCI홀딩스의 미국 자회사 OCI에너지가 개발한 태양광 프로젝트 전경. /OCI홀딩스

미국 내 태양광 설치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며 업황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과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올해 설치량 증가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도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반등을 모색하는 데 한창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태양광 설치량은 총 50GW(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특히 지난 4분기 설치량은 총 18.8GW로 전년 대비 32% 늘어났다. 이러한 성장세는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본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올해 자

국 태양광 설치 수요가 215~255GW로 예상돼 지난해 (278GW)와 비교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축소를 발표하면서 수요 둔화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조업체들

로서는 내수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업계 구조조정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내 공급 과잉이 풀리면서 원재료 및 제품 가격이 반등하고 미국 내 한국 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둘러싼

대의 환경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에 속도를 내는 등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부 생산 및 매출의 약 90%는 미국에서 발생하는데 최근 미국 태양광 수요가 개선되면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가정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이 3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시장 지배력이 추가적인 수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에 분산형 태양광을 설치해 대여해주고 투자세액공제(ITC) 및 보너스 혜택을 챙기는 TPO 사업을 영위 중인 점도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한국은 일반 가정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주택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해당 사업 효과가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OCI홀딩스 또한 미국 내 태양광 산업

수익 계열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OCI홀딩스 미국 자회사 OCI에너지는 이스라엘 태양광 회사인 아라바 파워와 260MW 규모의 선로퍼 프로젝트 합작법인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선로퍼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남쪽 와튼 카운티 약 210만평 부지에 개발되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다. 이를 통해 IRA 혜택으로 30% 세액공제를 지원받고 에너지저장장치 보너스 10%가 더해져 최대 40%에 달하는 투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제재가 강화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재검토해 투자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태양광 모듈용 웨이퍼도 반도체 웨이퍼에 포함될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2題

‘中企 빛낸 얼굴들’ 디지털로 재탄생

여의도에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 제막 산업훈장·자랑스런 중소기업인 등 383명

금탑을 비롯해 산업훈장 등을 받은 모범 중소기업인들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로비에서 디지털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 중소기업인 등 1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명예의 전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해 공헌한 중소기업인의 업적을 기리고 중소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이라는 이름으로 모범 중소기업인의 흉상 동판을 전시해 오던 것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 탈바꿈했다. 이날 헌액한 중소기업인은 2010년 금탑훈장

을 받은 최연장자(41년생)인 권혁홍 신대양제지 회장, 여성기업인인 우신피그먼트 장성숙 대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수상자인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산업훈장 수훈자,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중기중앙회 역대 회장 그리고 명문장수기업 대표 등 총 383명이다.

김기문 회장은 기념사에서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 중소기업인들은 IMF, 금융위기 등 역경의 순간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모범 중소기업인”이라며 “이는 단순한 기념의 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2세 기업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공간이 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축사에서 “늘의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과거와 현재를 잘 이끌어왔던 중소기업인들의 혁신과 열정의 DNA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전국 10개 권역 회장단 새 출범

제11대 지역 중소기업회장단 위촉식 ‘역할 중요... 지자체와 협력 강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10개 권역을 대표하는 지역회장단을 새로 꾸렸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1대 지역중소기업회장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역중소기업회장단에는 박종석 서울동북부건설유통사업조합 이사장(서울), 허현도 부산광역시발전추진사업조합 이사장(부산울산), 성태근 대구경북자동차경매조합 이사장(대구경북),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조합 이사장(광주전남),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조합 이사장(인천),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조합 이사장(경기), 최선운 강원도연식식품조합 이사장(강원), 김병진 한국목재공업조합 이사장(전북), 노현태 울산경남광고물제작공업조합 이사장(경남), 성상훈 제주아스콘사업조

합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중소기업회장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 왔다.

임기 2년 이내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각 지역 정회원(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 또는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전형위원회 심의 후 중기중앙회장이 위촉한다.

지역회장단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중기·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의 현안 해소와 위상 제고 역할을 수행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이 겪는 현장으로 개선 및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국회 등과 소통·협력 관계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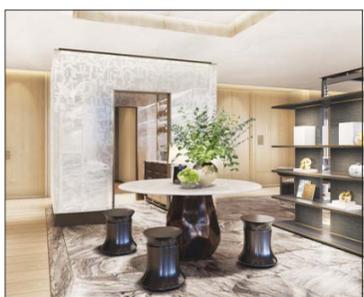
대한항공, 공항라운지·기내좌석 ‘고급화’ 나선다

인천공항 라운지 전면개편 ‘프리미엄 이코노미’ 신설

대한항공이 공항 라운지를 개편한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고급화 전략’의 일환이다.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좌석의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 이코노미’석도 일부 항공기에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기존라운지를 전면 개편하고 공항 확장 구역에 라운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인해 2터미널로 이전하는 것에 대비하는 조치다.

대한항공은 우선 인천공항 확장공사 가 최근 마무리되며 만들어진 공항 동·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일등석 라운지 예상 이미지. /대한항공

서편 날개 구역에 각각 ‘프레스티지 가든 라운지’를 구축한다. 현재의 프레스티지 동편 라운지와 마일러 클럽 라운지는 기존 위치에서 확장·개편하고 8월부터 고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공항 서편에 위치한 일등석 라운지와 프레스티지 라운지도 대규모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4월 개장한다.

라운지 확장·개편이 모두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대한항공 라운지는 4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총면적은 5105㎡에서 1만 3385㎡로 약 2.6배 넓어지며 좌석 수도 900여 석에서 1600여 석으로 1.8배 가량 증가한다. 아시아나항공 라운지는 내년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완전한 통합을 앞두고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전망이다.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도 도입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구간 일반석보다 다리 공간이 7~10cm가량 더 넓고, 라운지 이용 등의 혜택이 있는 ‘이코노미 스마티움’이란 좌석을 운영해왔는데, 통합 대한항공이 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첫 도입 기종은 보잉 777-300ER 11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일등석 대신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설치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2년 연속 ‘전기차 충전 보조사업자’ 선정

SK이노 E&S 아이파킹 전국 8900곳 주차장 기반 본격화

SK이노베이션 E&S의 전기차 충전·주차 플랫폼 계열사 아이파킹이 환경부 주관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급속·완속 충전 분야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선정된 사업자 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거둔 성과다.

이번 선정으로 아이파킹은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에 완속 충전시설을, 상업시설, 물류센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아이파킹은 표준화된 고품질 시공, 실시간 충전기 모니터링, 전국 단위 유지보수 체계 등 운영 역량을 인정받아



서울 종로구 ‘SK그린캠프스’ 내 아이파킹 전기차 충전소 전경. /SK이노베이션 E&S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업·문화·공공시설 등 전기차 운전자의 생활 동선 내에서 자연스럽게 충전할 수 있는 ‘목적지 충전’ 인프라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이파킹은 전국 8900여 개 지역·제휴 주차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